

# '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하수도 정책 추진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노후 수도관 교체·찾아가는 수질검사 강화 등 중점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올해 시민에게 믿음 주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표로 노후화된 수도관의 지속 교체와 찾아가는 수질검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상·하수도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장병호)는 2023년도 상·하수도 분야의 중점 추진전략을 17일 제시했다. 추진 방향은 공급기반 확충으로 선진급수체계 구축, 깨끗한 수돗물 관리로 고품질 상수도 공급, 친환경 하수관리로 생태도시 구현, 수요자 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 등이다.

시는 맑은 물 공급사업 1단계로 정비된 지역의 우수율이 87% 정도 향상된 가운데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통해 서신동과 삼천동 일원의 노후 급·배수관 38km를 2025년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이에 급수가 시급한 지역과 미급수 세대 수가 많은 만성동 등 6개소에 약 2.6km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새로 설치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노후 된 옥내 급수관 개량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용담호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정수지와 배수지, 각 가정의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수질검사를 매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한 노인·아동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확대한다.

시는 친환경 하수관리로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거쳐 36,000톤/일 규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 이행 후 올해 11월 중 착수해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안심 확인제,

공동주택 '안전한 수돗물 인증서'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 교체,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시스템 운영, 수도계량기 통과와 수돗물 누수, 수도시설 고장 등 긴급 수리 안내, 수요자 중심의 요금부와 시스템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장병호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친환경 하수관로 관리와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 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주를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임익준 완산구청장이 관내 대청소에 직접 동참하며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몸소 뛰는 현장 청소행정에 나섰다.

## 깨끗한 전주 이미지 제공 나서

### 임익준 완산구청장, 현장 청소행정 동참... 일제대청소 실시

임익준 완산구청장이 관내 대청소에 직접 동참하며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몸소 뛰는 현장 청소행정에 나섰다.

이번 청소행정은 귀성객과 시민들 대상으로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맞이 청결주간'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완산구는 오는 20일까지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한지 등 각 동별 청소 취약지를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주민 등 550여명이 함께 정비하는 일제대청소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특히, 구는 설 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 청소 관련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4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상황실 및 공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방문객이 많은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등 중점관리구역에 가로 청소를 실시해 설 연휴 공백없는 청소행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깨끗한 전주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경찰청, "적색 신호 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앞으로 도로주행시 교차로 통과한 우회전에서 반드시 '멈춤' 해야 한다. 경찰수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시 정지의무에 대한 명시부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월 22일부터) 실시 예정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새롭게 시행

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전망이다.

이후 단속 실시여부(과태료 부과 및 도로교통법 위반)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등의 경우 직전에서 일시정지하고 주위를 살피며 운전할 것"을 당부하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전주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17일~24일까지)을 최소화 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내형유동시설, 재래시장, 한옥마을' 등 명절 기간 다중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에 대해 도로소통 위주의 선제적 단속 행정을 보이며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인도·횡단 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행위에 특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자공원묘지와 군경묘지 주변에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온힘을 다할 예정이다.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교통체증 유발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한 발 앞선 대응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무료 동물등록의 날 행사 추진

전주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전주시, 설맞이 상업지역 중심 불법광고물 대대적 단속

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

치 시설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청 및 완산·덕진구청은 일제정비 기간동안 주간 및 야간에 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

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공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계첩·배포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최아영 기자

## '금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채용 공고

### 전북환경청, 31일까지 접수... 28명 선발

전북지방환경청은 금강 상류 및 섬진강 상류의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위해 환경지킴이 28명 채용 공고를 진행 하고 있다.

환경지킴이는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계도, 하천변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며, 주 5일·일 8시간 근무로 오해 12월 20일까지 활동 하게 된다.

채용공고 내용은 전북환경청 누리집(www.me.go.kr/smg)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는 온라인(워크넷)과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으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채용자는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쳐 결정된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의 노동시장이행형 직접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소득보조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지난해에는 환경지킴이들을 통해 불법어로·낙시행위·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현장계도 1389건, 정화활동 5349건, 교육·홍보 200건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박건우 전북환경청 팀장은 "환경지킴이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금강·섬진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주민 고용효과 창출과 함께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를 도모하겠다. 다양한 활동을 계속 발굴하고, 환경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